



〈사람을 닮은 책, 책을 닮은 사람〉 전시

책있는 미술관, 나 닮은 종이책과 마주하기

책과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광고 카피만 봐도 그렇다. 서점의 어린이책 코너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줄 동화책을 고르는 임산부들만 봐도, ‘내 인생의 책 한 권’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사이’가 돼버린 책을 소개하는 명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책은 이미 문자기록의 의미를 넘어서 지식이나 정보를 전하고, 감동을 자아내고, 추억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사물 이상의 ‘무엇’이 되어 있다는 것을. 경복궁 건너편의 금호미술관에서는 이런 책과 사람의 닮은꼴을 찾은 10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사람을 닮은 책, 책을 닮은 사람〉이 그것. 이 전시는 사람과 책의 닮은 얼굴을 겹쳐놓는다. 13명의 어린이와 4명의 미술가는 약 6개월 동안 조각, 설치, 회화, 아트북, 예술·감성 도서관 등 책을 주제로 하는 100여 점의 작품을 준비했다. 모두 상상력 만, 문제의식 만으로 무장된 작품들이다. 상상력이야 ‘예술’의 기본 질료이니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내세운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이는 바로 ‘종이책’의 중요성, 즉 아날로그의 진정성이다. 전시를 총감독한 서해성(책읽는 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사무처장) 씨의 기획의도는 “아날로그적 주제인 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디지털 시대를 경고하자”는 것이었다. 미술가들은 이 경고를 축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 재미있는 것은 ‘한 목소리’지만 이들이 내는 음색이 다양한 개성으로 넘쳐난다는 것이다. 특히 관객들을 제3의 작가로 끌어들여 완성하는 전시이기에 전시장에 들어서는 기분이 무엇보다 새롭다.

금호미술관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서 ‘그림 속으로 들어간 책’, ‘물 속에 지은 도서관’, ‘책에게 말 걸기’라는 개별 주제로 꾸며지고 있는 전시 설계도는 이렇다.

● ‘그림 속으로 들어간 책’은 그림이라는 평면 속에 책을 상징하는 ‘지혜’의 메시지를 담았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있는 책 중에 ‘단수’ 개념의 책은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이다. 사진, 회화, 조각, 설치작품들 중에 책 한 권만을 재현한 작품은 찾아볼 수 없다. 모두 책을 쌓아놓는 ‘집적’의 형태를 보여준다. 책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사유의 힘’이 그만큼 큰 무게를 가졌다는 의미다. 서해성 씨는 〈망한 책방에서 가져온 기억〉이라는 실험적인 작품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는 실제 문을 닫게

된 소규모 책방에서 구입해 두었던 책 800여 권을 쌓아올린 후 팽이를 부착해 작품을 완성했다. 작은 책방에 얽힌 추억부터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작품의 질료로 쓰인 옛 책을 발견하는 즐거움까지를 고루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 물 속에서 수영을 하거나 목욕을 할 수는 있어도 영화 주인공처럼 욕조 속에 들어가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 ‘물 속에 지은 도서관’은 타이틀에서 느낄 수 있듯 실험성이 짙은 공간이다. 5,000여 권의 어린이책과 양서를 소장하고 있는 이 예술도서관에서는 중앙에 있는 <물 속에 지은 도서관(손성진·김기라)>을 축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작된 작품들이 관람객의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 공간에서 ‘물’은 단순한 물의 의미를 넘어선다. 지혜의 샘, 치유의 샘 등 ‘책’과 의미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지성의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예술과 감성의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보다 ‘편안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주최측의 의도였는데 다행히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여럿 발견된다. 냉장고 안에 들어간 책을 꺼내 읽는 것은 물론이요, 욕조에 들어가 편안한 자세로 책을 펼치면서 공간의 ‘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관람객들도 많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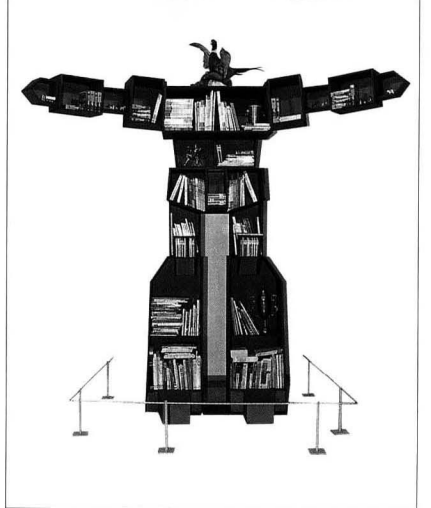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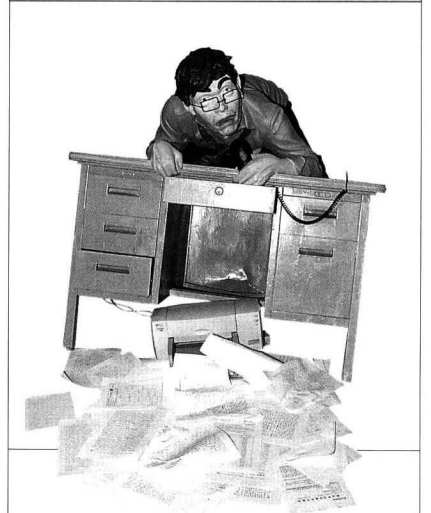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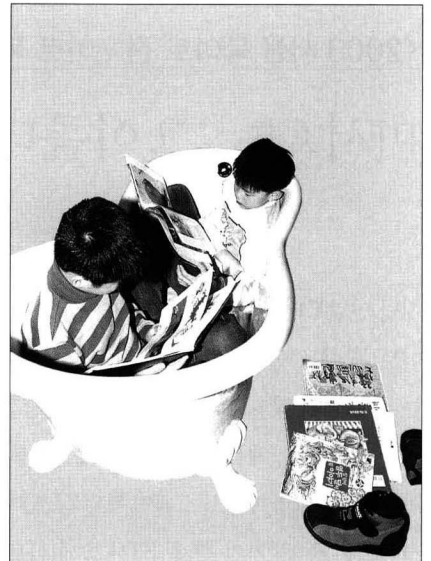
● ‘보는 전시’에서 ‘참여하는 전시’를 적극 유도하는 공간도 있다. ‘책에게 말 걸기’ 공간은 관람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어린이와 미술가가 함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전시장에 들어서면 독특한 조형작품들이 관람객을 향해 손을 내민다. 미니어처처럼 작은 책, 로봇처럼 힘세고 거대한 책까지. 공상과학영화의 소품 창고에 들어선 것처럼 사방이 신기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크기, 모양, 형태가 제각각인 책뿐 아니라 어린왕자를 천장 위에 붙여놓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망원경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작품도 있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든 공동책도 있다. 아이들이 텍스트를 쓰고, 부모가 표지를 만들어 탄생시킨 책이다. 이 공간은 재료와 논리, 기능, 형태 등에 따라 책의 의미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틀을 과감히 벗어던진 작품들로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 이번 전시에 소개된 <책으로 낮잠들기>라는 작품을 보자. 책에 관한 작가의 사유를 소파에 직접 적은 이 작품은 책과 사람의 ‘사이’를 극도로 좁혀나가면서 전시의 의미를 잘 드러내준다. “책과 내가 하나가 된다. 물론 의자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말이다. 그러니 책은 나이며, 잠이며, 의자이다.”

● 내가 책이 되고, 책이 내가 되고, 책과 내가 함께 앉은 소파까지 거리를 좁혀나간다. 책과 나와 잠이 일체가 되는 것이다. ‘책’은 이제 작정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잠이 들면서, 꿈꾸면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로 남는다.

● 동심의 결정체인 동시집, 흥미진진한 소설, 한 시절의 유행을 읽을 수 있는 패션 잡지까지. 내 얼굴을 닮은 책은 어떤 책인지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의 ‘나’인 책 한 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책 한 권씩을 자유롭게 가져가라는 제안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이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을 전하기 위해서 시도된 퍼포먼스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번 전시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방문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평일에는 300여 명, 주말에는 500여 명이 찾아들 정도. “자발적이고 유쾌한 전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책임기획자 김지영 씨(아트링크 프로젝트 디렉터)의 뜻을 알아차렸는지 관람객들은 ‘시끌벅적’ 유쾌한 소리를 내며 여기 책이 들어찬 미술관의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 **김지영**

취재 김정연 기자·사진 김태경 기자



● <사람을 닮은 책, 책을 닮은 사람>은 2004년 2월 28일까지 경복궁 건너편 금호미술관(02-720-5114)에서 열린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일요일 오전 11시 개관)이며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관람료는 개인 5,000원, 20인 이상 단체는 4,000원.